



사회로 통하는 지름길 제대군인 지원센터

- 취·창업지원**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변화관리, 특강, 창업워크숍 등
- 직업훈련**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 멘토링 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필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중앙로 172, 6층
(근화동)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군 인 친 구
1666-9279
전국 10개 센터 대표번호

리:스펙 제대군인 2023 April Vol.206

리:스펙 제대군인

04 Vol.206
2023 April



상생

사람과 사람
상생의 힘을 믿어요

생각 한 스펀
또 하나의 경쟁력,
상생

슬기로운 직장생활
K-직장인의 직장생활
MBTI로 알아보는 소통 방법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상생의 힘을 믿어요

Win-Win

어린 시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친구와 잘 지내야 하는지 묻고도 싶었지만 “세상은 너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야”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받들어, 규칙을 배우고 따르며 그렇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연한 순리처럼 아주 자연스럽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간은 본래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서술했습니다. 학자들은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쓰는 정치(政治)를 뜻하기보단 군집을 이루고 어우러져 산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뜻을 모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으로도 사회를 이뤄 살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당연한 본능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며 함께의 가치로 실현되는 감동의 순간들이 모여 비로소 사람, 그리고 삶을 완성하는 상생의 나비효과를 믿어봅니다.



상생

사람과 사람
상생의 힘을 믿어요

통권 206호
발행일 2023년 4월 3일
발행처 국가보훈처
발행인 박민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기획·디자인·인쇄 동아문화사(053-252-9060)

www.facebook.com/mpvakorea
twitter.com/hun2day

www.youtube.com/user/mpvakorea
blog.naver.com/mpvalove

www.instagram.com/bohun_story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1

Find 業 VISION

02
테마읽기
사람과 사람
상생의 힘을 믿어요

06
생각 한 스펀
또 하나의 경쟁력, 상생
___ 한재동 브랜드 전문 에디터 / 마케터

08
라이프 체인저
상생의 길을 실천하는 교통약자의 편안하고 친근한 발
___ 김옥출 예비역 육군 원사

12
함께 그려본 내일
군수품 정비 노하우가 사회에서 빛을 발하다
___ (주)디펜스타

16
이런 직업 처음이지?
자연의 시간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___ 농촌 슬로우 라이프



12

Find 業 LIFE

18
직업처방전
군생활로 몸에 배인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되
마음은 늘 여유롭게
___ 조광수 예비역 공군 준위

22
기업이 알고 싶다
뻘하지 않은 FUN한 개성과 재미를 판매하다
___ CIC F&B

24
굿 JOB 굿 LIFE
국가 지원제도와 혜택을 활용하자
___ 배대한 예비역 육군 소령

26
슬기로운 직장생활
K-직장인의 직장생활
MBTI로 알아보는 소통 방법

28
성공 길라잡이
전역하셨다고요? 제대군인 지원신청은 하셨나요?



20

Find 業 HAPPINESS

30
금쪽상담소
제대 후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___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박지혜 연구원

32
접속! 직업월드
경찰관부터 요리사까지 폭넓은 연기로 '공'머들다
___ 배우 공효진

34
차이나는 클라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나의 일정, 나의 공부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

36
힐링온더트립
오감을 열면 힐링이 된다
자연과 예술의 도시 원주

40
나의 군대일지
지휘관이 움직여야 부대가 움직인다
___ 이영일 예비역 육군 소령

42
해피투게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천연수세미 만들기

#사우스웨스트 항공
#사브밀러

또 하나의 경쟁력, 상생

글 한재동 브랜드 전문 에디터 / 마케터

● 상생경영의 교과서,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은 강력한 인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저가 항공사임에도 1967년 창립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가장 큰 항공사 중 하나가 되었어요.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양합니다.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고 비즈니스석과 일반석의 구분을 없애며 항공권 가격을 낮게 책정했어요. 또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예약을 하면서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펀(Fun) 경영'이에요.

'손님은 왕'이라는 문구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창업자 허브 켈러허(Herb Kelleher)는 오히려 '직원이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펀 경영'의 핵심 가치예요. 켈러허는 "회사가 직원을 왕처럼 모셔야 직원들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오히려 직원들을 괴롭히는 불량 고객들을 퇴출하는 것이 회사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우스웨스트 항공 직원들의 서비스는 미국에서도 늘 손꼽히는 수준으로 기장과 승무원들의 재미있는 서비스 일화가 화제가 되기도 해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 창출입니다. 그러나 이윤만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숫자상으로 보이는 당장의 이익보다, 다양한 상생의 방법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을 경쟁력으로 삼아 성장한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사브밀러의 이야기입니다.



허브 켈러허
출처 NewYork Times



상생 경영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출처 Unsplash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즐기며 제공한 서비스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가장 성공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으로 마케팅 관련 도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보통 일하기 좋은 기업의 조건으로 높은 연봉과 복지, 워라밸 등을 따지는데, 사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경쟁사에 비해 연봉이 높거나, 업무량이 적지 않은 기업임에도 늘 일하고 싶은 기업에 뽑혀요. 그 비결은 바로 '고객 만족은 직원 만족에서 나온다'라는 노사 상생 덕분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성공적인 상생은 직원뿐만 아니라 경쟁사와도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 'just plane smart'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경쟁사인 스티븐스 항공에서 이미 'plane smart'라는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저작권에 대한 소송 대신 사우스웨스트 항공 켈러허 회장은 본인보다 훨씬 젊은 스티븐스 회장에게 팔씨름 승부를 제안합니다. 진 쪽이 슬로건을 포기하자고요. 스티븐스 항공의 회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팔씨름 경기는 대대적인 이벤트로

Southwest Airlines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승부는 스티븐스 항공이 이겼지만, 슬로건을 사우스웨스트 항공에게 양보해요. 팔씨름 이벤트로 스티븐스 항공은 어마어마한 광고효과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다음 날 주가가 3배나 뛴 정도로 엄청난 수혜를 누렸습니다. 경쟁사까지 상생의 대상으로 보는 진정한 윈-윈(Win-Win)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 아프리카 농민과 함께 만든 맥주, 사브밀러(SABMiller)

사브밀러는 세계적인 맥주회사입니다. 맥주 업계는 기존 소비자들의 맥주 소비 감소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대체 시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만한 곳이 없었죠. 그러나 아프리카를 새로운 맥주시장으로 개척하기에는 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주류에 대한 높은 세금, 맥주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보리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결정적으로 맥주를 사 마실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을 가진 소비층이 적었어요.



카사바를 원료로 만들어진 모잠비크의 대표 맥주 임팔라(Impala). 출처 theworld.org

SABMi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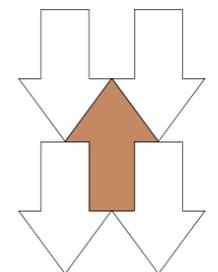


이글 라거. 출처 mondeselection

이런 문제들로 그간 많은 주류업체가 큰 시장이었던 아프리카 진출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브밀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존 맥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새로운 맥주를 만들어 아프리카 진출을 시도합니다. 우선 보리 대신 아프리카에서 잘 자라는 사탕수수과 옥수수로 맥주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 혁신적인 기술 덕에 맥주의 원재료를 수입하지 않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작물을 재배하는 현지 농부들에게 납품받았습니다.

대부분 영세했던 아프리카 농가는 덕분에 수입이 늘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사브밀러가 아프리카에서 생산한 맥주의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사브밀러의 맥주가 많이 팔릴수록 아프리카 농가의 소득도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경제 자체가 발전하게 되었어요. 상생의 선순환이 이어진 것입니다. 우간다의 국민 맥주 '이글 라거(Eagle Lager)'가 바로 그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우간다에서 성공적인 상생 사례는 모잠비크로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뿌리채소 카사바(cassava)를 원료로 한 맥주를 출시하게 돼요. 사브밀러가 연구를 통해 카사바 맥주를 만드는 시설과 기술을 만들었고, 모잠비크 저소득 농가들에서 카사바를 구매했습니다. 이것이 모잠비크의 대표 맥주 '임팔라(Impala)'로, 이 맥주 역시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죠. 사브밀러는 모두가 포기했던 시장을 상생이라는 경쟁력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의 대표 맥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㉞





상생의 길을 실천하는 교통약자의 편안하고 친근한 발

타인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는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하지 유리한 사람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삶이 곧 승부이며 전투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으로 처신하는 것이 용인되는 현실이다. 가끔씩 이러한 세상의 물결에서 한발 비껴 서있는 이타적인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정신없이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QR코드로 접속하면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옥출
예비역
육군 원사

Kim Ok-chul



계절의 변화를 알리며 군데군데 꽃망울이 터지고 있지만 아직 조금은 쌀쌀한 3월 말 을숙도 생태공원에서 김옥출 씨를 만났다. 군생활에 대해 물어보자 선함이 묻어나는 얼굴로 대답을 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5년 4월 특전사에 입대하여 2019년 2월까지 총 34년 6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육군 원사 김옥출입니다. 특전사에 자원입대하여 특전부사관 임무를 수행하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더 큰 꿈과 목표를 위해 아전전환을 하여 8보병사단, KCTC 주임원사, 교육사령부 주임원사를 마치고 전역하였습니다.”

외모만 보아서는 특전사에 부사관으로 입대 후 35년 가까이 군생활을 한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슴기 없는 편안한 동네 형님 같은 분위기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물어보았다. “저는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부산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팀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차량은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노약자 및 환자, 임산부나 어린이 등 활동에 불편을 겪는 이들을 위해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는 고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텐데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했다.

“인제에서 근무할 때 우연한 기회에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는 장애학생을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부사관 후배들과 함께 부대 주변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매일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면서 많은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역 후에도 사회에서 봉사를 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알게 된 부산시설공단 운전원에 공채로 지원하였으며 좋은 기회가 되어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며 힘든 부분에 대하여 물어보자 일반인들의 배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저희 두리발을 이용하는 분들은 승하차 시 휠체어를 싣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가끔적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길이 협소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Kim Ok-chul



경적을 울리시는 분들을 보면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모든 사람은 지금 장애인이거나 앞으로 장애인이 될 사람으로 나뉘는데 지금 장애가 없다고 해서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이 일을 선택하기 전에는 장애인들은 단지 아픈 몸을 가지고 있거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해 보니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픔을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저도 힘들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겠다고 한번 더 다짐하게 되죠.”

누구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 지금 김옥출 씨가 하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자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따스한 시선을 보낼 수 있는 김옥출 씨가 하기에 그분들에게 무척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역을 앞둔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김옥출 씨가 말한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살아있

다면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당연히 꿈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이라고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작더라도 그저 바라고 소망하는 거면 돼요. 우선 꿈을 품고 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단계씩 이루어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령 꿈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행복하면 되죠. 사회에 나오기 전에 많은 꿈을 품었으면 합니다.”

김옥출 씨의 꿈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향해 있는 것 같다. 타인의 웃음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년이 되어 은퇴한 이후에도 사회복지분야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생각하는 ‘상생’에 관해 질문해 보았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울 수 있다면 서로 도와야죠. 혼자서는 재미없잖아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상생의 길이 아닐는지요?”

대화를 나누는 도중 달콤한 향기가 느껴졌다. 꽃향기보다 더 향긋한 사람내음에 취하기 좋은 봄날이다. ☺



이진영 차장

변장연 과장

이종혁 대표

군수품 정비 노하우가 사회에서 빛을 발하다 _(주)디펜스타

정비부대의 중·장기복무 군인들은 전역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용 장비 정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사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걸음마를 시작해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군대와 군용 장비 제조업체, 그리고 제대군인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Q (주)디펜스타는 어떤 회사인가요?

이진영 차장 주식회사 디펜스타는 2021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군사용 장비 정비, 열영상 감시장비 정비,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용 수리부속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군부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대표 군사용 장비 서비스 지원센터를 전방부대에 근접한 강원도 춘천에 만들어 정비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나 구미의 군사용 수리부속을 납품하는 업체가 서비스를 오려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먼 거리를 이동하고 정비를 해야 하지만 저희 회사와 계약을 하면 단 2시간 만에 서비스가 이루어지니 서비스의 혁명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기업은 서비스 인원 급여, 4대보험, 차량리스비, 주유비, 고속도로비, 식·숙박비를 절감하고 3분의1 가격에 저희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기에 아주 만족해 합니다.

Defenstar Co., Ltd



Q. 전역 후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종혁 대표 군생활을 30년 이상 장기로 일하신 선배님들을 지켜보니 전역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경비 보안, 건물관리, 운전직을 주로 하시는 걸 봐 왔습니다. 군에 계실 때는 군사 장비 정비의 기능장 같은 분들이었는데 사회에서는 그 전문적인 지식이 1%도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국가로 봤을 때도 엄청난 손해이고요.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도 군에서 배우고 익힌 전문적인 지식을 국가와 개인을 위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식회사 디펜스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Q. 회사를 알게 된 경위와 일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진영 차장 이종혁 대표님은 제 군생활 5년 6개월 동안 첫 반장님이자 마지막 반장님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역을 하신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뵈었더니 뜬금없이 창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텅 빈 10평짜리 사무실에서 대표님이 구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실로 와 닿지는 않았습다. 하지만 군생활 경험을 돌아켜보면 대표님은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으나 사람 이종혁을 믿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같이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같이 전역을 하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장연 과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채용공고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던 중 디펜스타에서 군장비 관련 정비를 위한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찾아뵈고 대표님을 만나 대화해 보니 제 생각보다도 더 창의적이고 비전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기회가 되어 이곳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실제로 회사생활을 해보니 직원들 복지 및 근무 여건도 매우 우수한 회사라 생각합니다.



Q. 입사 후에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회사의 장단점을 말해 주세요.

이진영 차장 저희 회사는 직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다니기 좋은 직장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일하고 월급을 받아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근무 시간은 9시 출근, 4시 퇴근으로 기본적

으로 근무 시간도 적으면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외부 업무가 있을 때는 제외하고 말이지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도 모두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이라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반 군필자보다는 쉽게 알 수 있어 일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군생활을 하면서 장비가 고장이 나서 제 때 수리가 되지 못하면 그동안 군대의 전력에 손실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가 해준다면 군 전투준비태세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기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많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변장연 과장

우선 대표님의 열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다른 어떤 회사보다 뛰어난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직원이 직업군인 출신이어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일반 회사보다 업무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다.

Q. 군복무 경험이 회사 생활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끼칩니까?

이진영 차장 저희 일이 군대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 지금도 군생활을 하고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께서 신경써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또한 오랜 군생활을 통해서 실제 군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복무 경험이 없다면 꿈도 못 꿀 일이지요.

Q.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들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변장연 과장 앞으로 전역을 할 후배 또는 이미 전역을 한

후배님들께 조언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판단해 봐야겠지요. 그런 후에 그 일에 적합한 자격증 취득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아무 자격증이나 취득해 보자는 식으로 하면 시간도 낭비하고 금전적인 면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역 전에 틈틈이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혁 대표

저는 전역을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가 세워 놓은 한 가지 계획에 맞춰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것이 여의치 않아지면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준비를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전역 전에 최소한 다섯 개의 인생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 계획이 안되면 두 번째, 또 세 번째로 바로 옮겨갈 수 있죠. 최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Farm village,

자연의 시간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시간에서 벗어나 농촌 자원을 활용한 자연과 치유의 직업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농촌, 슬로우 라이프

참고 워크넷 한국직업사전, 커리어넷 미래직업, 농촌진흥청 농사로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시간

치유농업사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치유농업'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설계하여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일을 한다. 2021년 3월 '치유농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치유농업은 건강증진의 새로운 수단이자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관련 자격 및 전공

국가 자격인 치유농업사 1급, 2급 시험을 시행 중이고 원예, 동물매개, 음식치료 등 치유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민간 자격이 개설되어 있다. 단순히 농업 활동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 교육시설, 병의원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수목의 건강을 책임지는

나무의사

그 이름에서부터 초록의 향기가 묻어나는 직업 '나무의사'는 말 그대로 나무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사람이다. 곤충이나 병원균 등에 의한 생물학적 원인이나 토양, 대기, 기후 등에 의한 비생물적 원인을 조사해 나무의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일들을 수행한다. 나무 병원을 설립하거나 산림청, 수목원 등 공공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유망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 자격 및 전공

현재는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등이 나무 병원을 개업할 수 있지만 올해 6월부터 나무의사 자격증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나무병원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자격인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슬기로운 농촌 라이프

스마트팜 구축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농업 분야에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탄생한 '스마트팜 구축가'는 농작물을 언제 어디서든지 관리할 수 있는 지능화된 농장을 만드는 일을 한다. 국가나 민간에서 만든 연구소, 대학교, 스마트팜 관련 장치를 만드는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고 실제로 스마트팜에서 농사짓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관련 자격 및 전공

정보 통신 기술이나 농업을 전공할 경우 스마트팜 구축가가 되는 데 유리하다. 사물 인터넷(IoT), 공기나 토양의 측정기(센서), 스마트팜에서 일하는 로봇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부 도움이 된다.

힐링의 여정을 기획하다

농촌관광플래너

현대인에게 여행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휴식과도 같은 시간이다. 최근에는 농촌에서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여행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농촌관광플래너는 체험 위주의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직접 답사를 통해 지역의 숨은 농촌 관광지를 찾아내는 일을 수행한다.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농촌 여행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자격 및 전공

평소 여행을 많이 다니고, 특히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다. 여행 코스와 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갖추고 현장 답사 시 친화력 있게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이면 더욱 적합하다. ☎



Slow Life

군생활로 몸에 배인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되 마음은 늘 여유롭게

조광수 예비역 공군 준위

4남 2녀 중 세 분 형님이 모두 장기복무를 선택하여 젊음을 국가에 바쳤다. 형님들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직업군인을 선택하고 공군부사관으로 35년간 군생활을 하였다. 이제 비로소 군복을 벗고 사회에서 인생2막의 첫걸음을 옮기고 있는 예비역 공군 준위 조광수 멘토를 만나보자.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Mentee

군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Mentor

저희가 4형제인데 큰형님이 맹호부대 출신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셨고 둘째형님은 해병대 청룡부대 출신으로 마찬가지로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셋째형님은 공수부대 출신으로 만기전역하셨습니다. 저 역시 1987년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작년 말까지 35년간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 아들도 지금 대위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군인 집안이죠.

Mentee

군생활을 오래하셨는데 전역을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Mentor

그동안 쪽 총주에서 근무했는데 계속 근무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 이곳 총주가 여러 가지로 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집살림 하기 싫어서 전역을 결심했죠.



Mentee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Mentor

저는 롯데칠성 총주공장 내부에서 4.5톤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각종 음료 제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로 운반하거나 전국의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이송하기 위해 생산된 제품을 트럭에 상하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Mentee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따로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어야 하나요?

Mentor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그보다 큰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죠. 일반인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Mentee
선배님은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알려주세요.

Mentor
저는 군대 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충주에 있는 공군 91항공공병전대에서 자기개발 일환으로 기중기, 포크레인, 지게차 등 각종 기지건설장비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 충주로 오는데 저는 이곳에서 근무하니까 미리 지게차, 포크레인, 기중기 등 세 가지 자격증을 모두 취득해 놓았습니다.



***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는 기능사 자격증

-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필기는 지게차주행, 화물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를, 실기는 지게차 운전작업 및 도로주행을 테스트한다.
-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운전면허와 달리 자격증과 면허증을 모두 발급받아야 지게차를 운행할 수 있다

Mentee
다른 기지건설장비 자격증도 있으면 지게차보다 기중기나 포크레인이 더 급여가 높지 않나요?

Mentor
기중기나 포크레인은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지게차보다 더 어렵고 위험해서 그런지 경력자 위주로 뽑지만 지게차는 초보라고 해도 배우나기면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Mentee
군대와 비교하면 지금 하시는 일의 업무환경은 어떻습니까?

Mentor
이 일의 특징은 첫째로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은 흔히들 말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시대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항공기 엔진 정비를 했었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었죠. 게다가 교대근무가 아니라 정시출근. 정시퇴근이고 휴일은 모두 쉬죠. 연차도 있고 하계휴가, 동계휴가가 다 있어서 업무환경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환경이 좋다보니 이곳에 입사를 원하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 저도 주변에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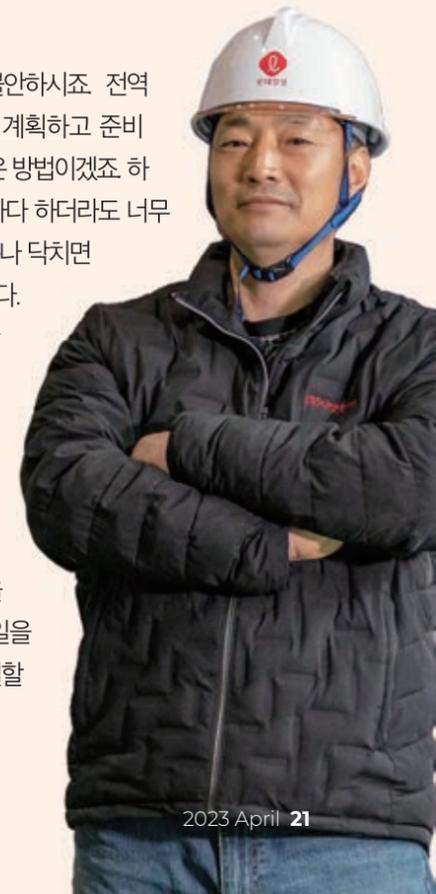
Mentee
일을 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Mentor
지게차도 중장비다 보니 운전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만 한눈 팔면 대형사고가 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기본적으로 물건을 상하차 할 때 적재한 물건의 시야를 가려서 조심해야 합니다.



Mentee
저처럼 전역을 앞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Mentor
전역을 앞두고 많이 불안하시죠. 전역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생활을 오래한 사람이라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미리 겁먹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눈앞에 닥친 일을 바라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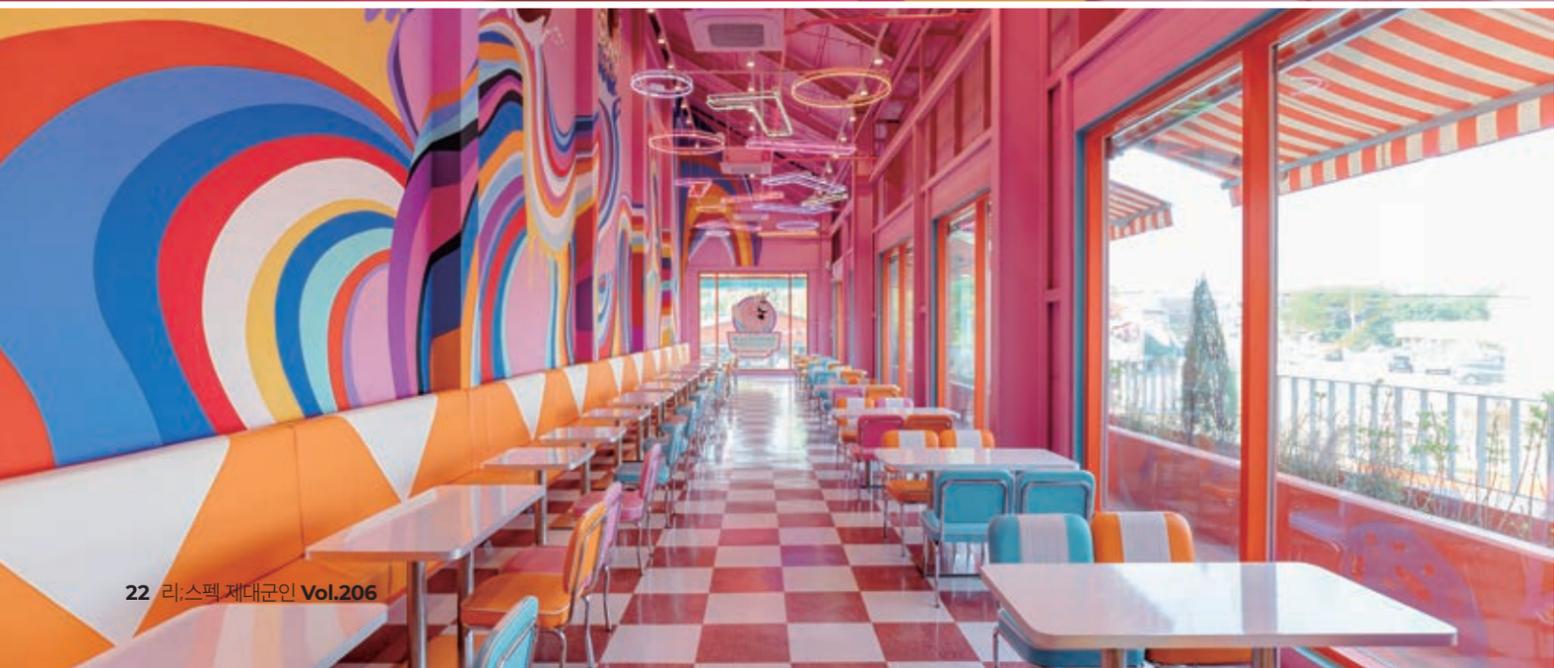


뻘하지 않은 FUN한 개성과 재미를 판매하다

CIC F&B

이제는 외식업계에서도 맛뿐만 아니라 특별한 콘텐츠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캘리포니아 농가를 지향하는 다이닝 '오프닝', 파주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더티드링크' 등 전국에서 주목받는 올인원카페테리아를 만든 주인공은 CIC F&B이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개성 있는 매장을 만들며 '맛있는 경험'을 판매하는 CIC F&B를 만나보자.

글 서인혜 사진 CIC F&B 제공



'CIC' 의미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때부터 레스토랑, 카페 등 서비스업에 관심이 많아 아아보코라는 F&B 기업에 입사하는 게 꿈이었다. 그렇게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떠난 유학생활 내내 유럽의 유명 레스토랑들을 찾아다녔다. 졸업 후에는 서비스 산업의 정점은 호텔이라는 생각과 함께 세계 최고의 호텔 서비스가 궁금해졌다. 1년 남짓 호텔에서 근무하며 개성 있는 서비스가 최고라는 것을 깨닫고 유일무이하고 독창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창의(Creativity), 혁신(Innovation), 광기(Craziness)의 앞글자를 따 'CIC F&B'를 창업하게 되었다.

CIC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가?

외부 투자 없이 자생하며 빠르게 성장해나간다는 점이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다. 좋은 입지가 아닌 콘텐츠로 승부하기 때문에 브랜드 기획부터 인테리어, 시공까지 직접 주도한다. 하나의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 및 매입, 설계, 시공, 인테리어, 메뉴 R&D 등 대략 12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통은 단계별로 외주를 맡기지만 우리는 로고 디자인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부딪쳐 만들어간다. 그렇기에 회사의 몸집은 가볍지만 90%의 프로세스를 내부에서 컨트롤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다.

MZ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의 브랜드는 개성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은 맛뿐만 아닌 새로운 경험이다. 재미와 파격으로 고객에게 지루함 대신, 새로운 경험을 주고자 한다. 고객을 중심에 두고 고객이 이 공간의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디를 포토존으로 생각하여 SNS에 올릴지를 염두에 두어 인테리어를 만들어간다.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재활용 더미에서 인테리어 소품을 찾거나 폐선박, 부식된 공사판 자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처음 공간을 마주했을 때부터 '미쳤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 탄성이 절로 나오는 요소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비결이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은?

2016년 말에 한국에 귀국한 후 창업을 준비하면서 투자자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우선 투자를 받기 위해 15장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합성, 이태원은 물론 한국에서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청담동을 찾아갔다. 37번의 거절 끝에 38번째에 기회를 얻었다. 세 차례의 프리젠테이션과 15명이 보는 앞에서 즉석으로 6가지의 요리를 선보인 후 투자를 이끌어냈다. 첫 투자금으로 슨인숍 형태의 브런치 매장인 '오프닛'을 열었고, 오픈하자마자 SNS 핫플레이스로 뜨며 4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다.

CIC F&B의 향후 방향은?

CIC는 F&B로 시작했지만 사업 영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패션숍, 가구숍, 청과물 시장 등 다양한 브랜드를 오픈할 계획이다. 그래도 외식업은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기에 CIC의 핵심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들어나가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한국에서 맛집이나 명소는 이제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간이 브랜드가 되면 IP(지식재산권)로 대접받을 수 있어 글로벌 IP 산업을 통한 해외 진출을 바라보고 있다.

창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조언해주신다면?

외식업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나중에 돈 모아서 창업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실행부터 해라. 그리고 모든 산업의 끝은 결국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에도 매출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적용돼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철학과 예술을 추구한다. 산업도 마찬가지다. 결국 예술을 붙잡고 있는 사람, 창의성과 혁신을 넘어 '뜯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업을 주도한다. CEO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



국가 지원제도와 혜택을 활용하자

2022년 제대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 공모전 장려상(요약본)
글 배대한 예비역 육군 소령



전역하면 뭐하려고?

2019년 11월 30일 24년 3개월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길을 뒤로하고 사회인의 길로 접어들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해야 하고 한창 가장 많은 지출이 필요한 시기였기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저축해 둔 자금이 많으면 개인 사업이라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 찬스로 물려받을 유산이 많은 것도 아닌 것이 현실이었다.

흔히 예비역·퇴역 영관 장교들은 가장 쉽게 제2의 삶을 준비한다고 하는 말이 있다. “나 예비군 동대장 준비할 거야”라고 맞다. 나도 그렇게 말했고 실제 그렇게 준비했다. ‘예비 전력관리 군무원’, ‘예비역 및 퇴역 소령들’이라면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선망의 인생 2막 직업이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일, 나도 해볼까?

전직기본교육 입교 이후 법령집 구매와 함께 먼저 합격한 선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공부했는지 조언을 듣고, 전국에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여러 학원 중 강의를 귀에 쏙쏙 박히게 제일 잘한다는 학원을 선정하여 인터넷 온라인 수강으로 선행학습을 시작했다. 밥 먹는 시간만 제외하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하며 시험 준비에 매달렸다. 2019년 10월 전역 전 1회, 2020년 4월 전역 후 1회 등 총 2회 시험을 쳤으나,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으로 불합격한 후 사실상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나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인 것 같아 군무원 공부를 그만두었다. 더구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동태 통합과 그로 인해 모집정원 감축, 제한된 공석 등으로 자신감이 계속 줄어드는 시점에서 3년 동안 6회의 기회를 부여해주는 이 시험을 불확실성을 갖고 허송세월 보내기가 괜히 두려운 나머지 과감히 접었다.

인생 2막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 일을 얻다

군 생활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가 어떤 곳인가를 경험해 볼 겸 양산에 있는 대기업 물류센터에 단기직 알바로 일을 시작했다. 1년 가까이 물류센터 알바가 이어질 때쯤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담당 선생님께서부터 연락이 왔다. 군 생활의 Know-How와 경험을 살려 부산 신항만 특수경비직으로 취업 추천을 해줄 테니 의향이 있으면 이력서를 작성해서 해당 회사에 제출해 보라는 연락이었다. 그렇게 인생 2막 두 번째 직장은 부산 신항만 특수경비직으로 2021년 2월 1일부 취업하였다. 3조 2교대로 진행되는 근무 조건으로 일주일 사이 주야간이 뒤바뀌는 교대 근무였으며, 이런 근무 조건에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과 의문이 계속 쌓일 때쯤 인생 2막 세 번째 직장이 결정될 계기가 되는 한 통의 전화가 후배로부터 걸려 왔다.



보훈특별고용,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내가 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할 때 교육장교 임무를 수행한 후배로 그간 1년에 한두 번씩 안부를 묻곤 하던 막역한 사이였다. 나보다 1년 먼저 전역하여 폴리텍대학에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원도 지역 군관사 BTL 관리팀장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었다.

“선배님, 혹시 제대군인지원센터 상급기관인 국가보훈처에도 취업알선 등록해 놓으셨습니까?” “아니, 그게 뭔데?”

“거기 등록해 놓으면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에 특별채용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 후 바로 다음 날 부산지방보훈청으로 달려가 사진 1장과 함께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나니 여러 지방보훈청으로부터 각종 취업알선 문자가 수시로 도달했다. 여기서 인생 2막 세 번째 직장이 결정되었다. 2021년 3월 한국도로공사 보훈특별고용 추천 직위에 첫 번째 지원에서는 불합격했으나 희망을 갖고 재도전한 끝에 그해 11월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실무직 9급 직위에 현역 시절 받은 봉급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군인연금을 합해서 가족들 모두 검소하게 살아준 덕분에 다자녀를 키우는데도 큰 부담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기업 취업이라는 스스로의 자존감과 함께 잘 갖추어진 각종 복리후생 제도 혜택에 대단히 만족하며 생활하는 중이다.

예비 제대군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이 글을 볼 전역 예정자들이 있다면 이런 당부의 말들을 전하고 싶다.

첫째,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교육과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나 역시 사회 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인 전직 기본교육과 부산·경남지역에서 시행된 전역예정간부 전직 컨설팅 교육에 참여해서 차후 구직활동과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군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 인간관계를 잘 맺자는 것이다. 군에서 보직 이동을 자주 하면서 무수히 많은 부하와 상관을 만나게 된다. 항상 근면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랫사람은 사랑으로 보듬고 다독여 주고, 윗사람에게는 존경과 충심을 다한다면 끈끈한 인간관계와 함께 좋은 인상을 남겨 어디서 만나더라도 함께 근무하고픈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을까 싶다. 사람의 앞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직업군인들은 책임감, 근면, 성실, 협동심으로 성실하게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회로 환원되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인 셈이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어진 직책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사회의 직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전역예정자들의 가슴 한켠에는 제2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두렵고 불안정한 미래가 걱정스러울 것이다. 물론 사회 적응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적성을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부딪혀 보자. 제2의 인생이 펼쳐지면 무슨 일이든 간에 자기만족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인생의 황금빛이 비칠 것이다. 제2의 삶에 있어서 빠른 사회 적응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국가보훈처 담당자분들께 지면을 빌려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수기는 지면 관계상 내용이 다소 요약되었습니다.

K-직장인의 직장생활

MBTI로 알아보는 소통 방법

정리 편집실 이미지 출처 NERIS Analytics Limited

커뮤니케이션만 잘해도 업무 효율은 높아진다. 요즘 MZ세대들의 소통 방식인 MBTI를 통해 나와 직장 동료의 성향을 알아보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건강한 소통으로 즐거운 직장생활을 이어나가자.

회사 내 분위기 메이커, 파워 인싸형

ENFJ, ESFJ, ESTP, ENFP



E유형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직장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직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업무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단, 자신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동료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다른 성격 유형을 존중해 줄 수 있다면 회사의 활력소인 비타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 직장 내에서 적극적인 타입
-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편
- 정반대 성격을 만나면 서로 피곤해질 수도
- 적당한 텐션 유지가 필요

외향(Extraversion)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이며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다.

E

에너지 방향

I

내향(Introversion)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한다.

사고(Thinking)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T

판단기능

F

감정(Feeling)
 사람과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고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한다.

감각(Sensing)
 오감에 의존하여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며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 철저히 일을 처리한다.

S

인식기능

N

직관(Intuition)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며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판단(Judging)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계획하고 체계적이다.

J

생활양식

P

인식(Perceiving)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본다, 신중하고 차분한 내향형 ISTJ, INTJ, ESTJ, ENTJ



내향형은 처음에는 낯을 가려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지만 친해진다면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업무를 진행해 동료들에게 편안함과 믿음을 준다. 친해지고 싶은 동료가 이러한 성향을 가졌다면 천천히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며 다가가는 건 어떨까.

-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 유형
- 처음에는 친해지기가 어려움
-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편
- 내 사람은 확실히 챙기는 경우가 많음

객관적인 시선으로 정확하게, 분석형

INTP, ENTP, ISFP, ISTP



논리적이고 단호한 분석형은 마치 엄격한 사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직관력, 통찰력 등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자신의 목표는 달성하고 마는 조직 내 핵심 구성원 역할을 한다. 자기 의사표현이 뚜렷해 의도치 않게 동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동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관대한 자세를 지녀보자.

-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인 타입
- 필터 없이 그대로 말하는 편
- 눈치 안 보는 자기중심적인 타입
-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할 필요가 있음

이 구역의 배려왕,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감성형 INFP, INFJ, ISFJ, ESFP



감성형은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타인을 더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며 조직에 잘 융화된다. 하지만 너무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동료의 업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업무만 산더미처럼 쌓일 수 있다. 자신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

-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함
-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타입
- 거절 못 해서 손해볼 수도 있음
- 이제 단호해질 필요가 있음

전역하셨다고요? 제대군인 지원신청은 하셨나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근거: 법률 제4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지원신청 자격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중기: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
- 장기: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
※ 제대군인지원센터와 별도의 보훈관서 지원신청

처리절차 ② 지방보훈(지)청



접수 구비서류 확인(신청서, 사진 등)
심사 및 결정
- 지원심사: 군 복무기간*, 범죄경력 조회
* 장교·준사관·부사관 임관(임용) 前 (군사)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미포함

처리절차 ③ 지방보훈(지)청



제대군인증 발급
-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 별도 안내

신청절차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팩스
(인터넷 또는 팩스 신청 시 사진 별도 제출)
지원결정 통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범죄경력 조회기간 제외)

처리절차 ① 신청인



신청서 작성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 제출서류: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사진 1매(3.5×4.5cm),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
※ 취업지원, 대부 등은 제대군인지원 신청과 별도

제대군인 지원 현황



취업지원(보훈특별고용명령)
주택(특별공급) 및 대부지원
교육지원(본인, 자녀)
의료지원(본인부담 진료비 감면)
공공시설 이용
국립묘지 안장지원(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물어볼까요?



문의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보훈관서 5개 지방보훈청, 21개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대 후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 미래에셋투자자와연금센터 박지혜 연구원



안녕하세요. 20년의 군 복무 후 제대를 앞두고 있는 45세 군인입니다. 제대를 하면 군인연금을 받게 되고, 따로 모아둔 자산도 있습니다. 제대 후 은퇴하기까지 앞으로 10년 정도는 소일거리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은퇴 전후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인은 군 계급구조의 특성상 정년이 빠릅니다. 직업군인은 보통 45세 전후 또는 53세 전후에 가장 많이 전역을 합니다. 일반적인 정년 연령(60세)보다 빠른 나이에 제대하여 30년, 혹은 40년 이상의 긴 은퇴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전역과 함께 근로소득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40~50대의 나이는 생애주기상 자녀 양육 등으로 가계지출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입니다. 소비 지출액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나이인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연령은 우리나라가 평균 60세인데, 군인의 경우 정년이 빠른 만큼 생애주기수지의 적자에 직면하는 나이도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이 됩니다. 제대군인의 자산관리의 핵심 포인트는 그동안 적립해온 자산이 너무 빨리 소진되지 않도록 은퇴기간 동안 잘 꺼내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현금흐름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 규모가 얼마



인가' 라는 질문을 바꿔 '매달 쓸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당장 생활비로 쓸 만큼을 현금화할 수 없다면 곤란해집니다. 연금소득은 가장 안정적인 노후 현금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질문자께서는 군인연금을 받으십니다.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만 45세에 소령으로 전역하신다면 매월 약 200만 원의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2020)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평균적으로 개인 기준 월 165만 원, 부부 기준 월 268만 원을 적정 노후 생활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가 희망하는 생활비에 비해 공적연금소득이 부족하다면, 따로 모아둔 은퇴자산으로부터 소득을 추가로 인출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군인공제회에 적립해둔 퇴직급여를 분할급여 방식으로 연금처럼 지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미만이라면 퇴직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돈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인출해 나갈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목돈으로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창업실패로 인한 노후자금 손실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하겠죠. 적절한 자산을 노후 지출 용도로 쓰고자 한다면 본격적인 지출시기까지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적연금처럼 꾸준한 현금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운용관리의 핵심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방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셀프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점에 받은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55세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퇴직금 관리 계좌입니다. 2017년부터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군인을 포함한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P에 적립한 퇴직일시금 등의 목돈은 금융상품에 적절히 배분해 투자함으로써 나중에 투자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쳐 노후소득으로 인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IRP에서는 정기예금은 물론 국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 리츠(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안정성을 고려해 자금을 배분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40~50대는 아직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나이인 만큼,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제대 후에도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통해 노후자금을 모으고, 55세부터는 IRP 계좌에 적립한 자산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여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셀프연금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관부터 요리사까지
폭넓은 연기로 '공'며들다

배우 공효진

경찰관과 요리사는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꿈꿔왔을 직업이 아닐까. 우월한 연기력을 가진 공효진의 작품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 깊게 스며든 대표적인 직업인 경찰관과 요리사에 대해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사진 슌엔터테인먼트 제공



POLICE COOK

우리 동네 히어로, 경찰관 - 영화 <뽕반>

한국 | 2019년 | 감독 한준희 각본 김경찬, 한준희 | 시연 역
경찰 내 최고 엘리트 조직 내사과 소속 경위인 은시연은 F1 레이서 출신의 사업가 정재철을 잡기 위해 수사 중 오명을 쓰고 뽕소니 전담반으로 좌천된다. 매뉴얼도 인력도 시간도 없지만 뽕소니 잡는 실력은 최고인 '뽕반'이 미해결 뽕소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재철을 잡기 위해 추격하는 이야기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

경찰을 뜻하는 영어 폴리스(Police)의 어원은 폴리테이아(Politeia)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고 이후 로마인들이 그리스 문화를 접하면서 라틴어 폴리타(Polita)로 받아들여져 폴리스가 되었다. 고대에 경찰이라는 용어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헌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막는 것이 오늘날의 경찰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해킹, 인터넷사기, 교통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 계획 수립, 국제형사경찰(인터폴) 업무 등 국민이 살기 좋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한다.

경찰관이 되기 위해선

경찰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대 경찰행정학과 및 경찰대학 졸업,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특기자 경찰특채,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을 지원한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1년에 2번 응시가능하며 자격요격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녀,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 검사, 3차 응시자적심사와 4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평소 운동을 통해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은 기본이며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강한 책임감 및 사명감을 지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출처 쇼박스



출처 MBC

맛으로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 드라마 <파스타>

한국 | 2010년 | 감독 권석장 극본 서숙향 | 서유경 역
잘나가는 이태리 레스토랑 라스페라를 배경으로 음식으로 손님을 행복하게 하는 요리사를 꿈꾸는 여성의 파란만장한 뜨거운 성공담을 담은 이야기다.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요리사

조선시대 양반들은 하루에 5끼의 식사를 즐기고, 먹방부터 안부 인사가 밥 먹자, 밥 먹었냐! 일만큼 한국인은 언제나 밥에 진심이다. 이러한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 행복을 주는 직업이 요리사다. 요리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주문된 음식을 요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 재료를 사서 손질 및 보관하는 것은 물론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또한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은 물론 직원 관리와 위생 점검, 고객 관리까지 맡아야 한다. 맛있는 밥 한 그릇에 요리사의 무수한 땀과 노력이 담겨있다.

요리사가 되기 위해선

우선 요리사는 호텔이나 일반 레스토랑 소속 요리사로 일하거나 자신의 식당을 개업할 수 있다. 요리사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조리과학고등학교나 관련 학과의 대학에 진학하지만 식당에 취직하거나 개업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대형 레스토랑 등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식, 양식, 중식 등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외식업계는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예민한 미각과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만드는 흥미를 가졌다면 요리사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의 일정, 나의 공부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

할 일은 많은데 무슨 일부터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해보자. 꼼꼼하게 일정 관리를 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일마다 타이머를 설정해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 손 안의 비서,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나보자.

정리 편집실



투두 메이트

종이에 쓰는 것보다 핸드폰 자판이 편해진 당신을 위한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이다. 100만 MZ세대가 선택한 앱인 만큼 해야 할 일을 이모지를 활용해 간편하지만 예쁘게 기록할 수 있다. 친구나 동료를 팔로잉하면 상대가 업로드한 할 일과 일기에 응원의 말을 덧붙일 수도 있다.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시간 알림을 설정해 미리 챙길 수 있고, 모바일, 태블릿, PC, 웨어러블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사용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When I Work Team Scheduling

회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원 일정과 시간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회사의 관리자와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각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역할에 맞춰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리자가 직원에게 1:1 혹은 그룹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효율적인 일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작업캘린더도 만들 수 있다. 작업캘린더를 확인한 직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소통과 업무 관리가 쉬워지는 스케줄링 어플 워라밸을 유지하며 일하는 기쁨을 누리보자.

Focus To-Do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일까? 바로 시간 관리이다. 해야 할 일을 정리할 수 있는 메모 기능과 일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타이머 기능, 알람을 사용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당신, 쉬어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울리는 타이머 기능은 작업 효율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 도와준다. 영양제를 챙겨 먹을 시간이나 일기를 써야 할 시간, 혹은 잠시 일어나 휴식을 취할 시간 등 매일 반복해야 할 일은 따로 설정해 바른 생활 습관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나의 비서 나비

일정관리를 위해 '구글캘린더'를 사용한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자동 동기화를 설정해 앱에서 구글캘린더의 일정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일정을 기록해야 한다면, 태그별 색상을 다르게 설정하여 메모를 분류해놓을 수도 있어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일정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젯을 설정해둘 수 있어 일이 바쁜 이들에게 아주 유용하다. 일정뿐만 아니라 가계부, 장소 링크 설정, 손글씨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나만의 일정 관리표를 꾸밀 수 있다.

열품타

공시, 고사처럼 길고 긴 마라톤 같은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건 자신과의 싸움이다. 힘들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열정 품은 타이머'를 활용해 열정을 품고 다시 공부해보자! 공부 시간을 측정하는 동안에는 집중을 위해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막아주는 기능도 있고, 이용자들끼리 화면을 공유하며 공부할 수 있는 캡 스테디와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나 분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선의의 경쟁심에 불을 붙인다. 점점 목표에 가까워지는 스스로를 느끼며 오늘도 열정을 불태워보자. 📖



오감을 열면 힐링이 된다 자연과 예술의 도시 원주

4월은 발길 닿는 곳마다 봄의 추억이 일렁이는 낭만의 계절이다.
올 봄, 보통과는 다른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는 당신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대자연의 위엄과 예술·힐링이
어우러지는 도시 원주로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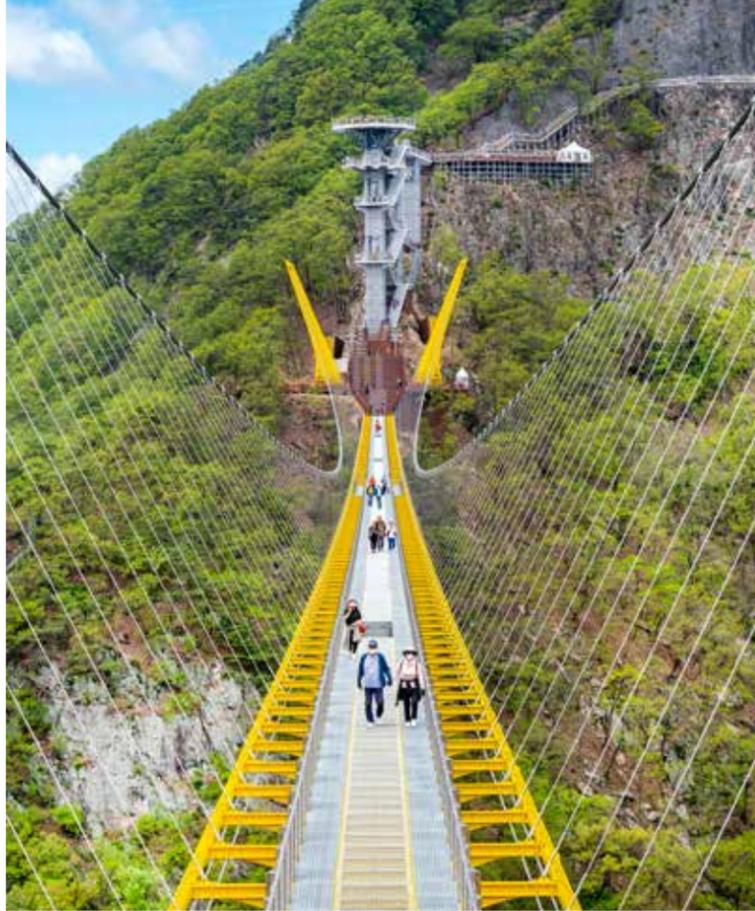
글 박성하 사진 원주시청 제공

아찔하게 마주하는 원주의 절경, 소금산 그랜드벨리

원주에서의 첫 여정은 이 계절의 생동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소금산에서 시작한다. 소금산(小金山)은 높이 350m의 작은 산이지만 아름다운 산세가 마치 작은 금강산'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무인매표소에서 출발해 20여 분을 걸어 올라가면 아찔하게 펼쳐지는 출렁다리가 시야에 들어온다. 산과 산 사이, 위엄 있게 이어진 출렁다리를 건너며 저마다의 '인생샷'을 남겨본다.

지난해 개통한 울렁다리는 기존의 출렁다리보다 길이가 2배 길고, 군데군데 바닥이 강화유리로 되어있어 스릴이 배가 된다. 다리의 이름을 '울렁다리'로 붙일 만큼 색다른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수려한 산세가 주는 감동과 짜릿함을 동시에 느끼며 걷다보면 절벽을 따라 이어진 아슬아슬한 소금산도와 소금산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다. 해가 지면 소금산 절벽을 배경으로 역동적인 음악 분수쇼가 펼쳐지고 원주의 대표적인 설화인 <은혜 깊은 평>을 소재로 한 미디어 파사드쇼도 감상할 수 있어, 낮부터 밤까지 풍성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 소금산 그랜드벨리 강원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12



1

- 1_ 소금산 그랜드벨리
- 2_ 뮤지엄산
- 3_ 동화마을 수목원
- 4_ 호국의길



2

자연과 예술로 둘러싸인 치유의 공간, 뮤지엄산

소금산 그랜드벨리에서 차량으로 15분 남짓 원주의 또 다른 랜드마크인 뮤지엄산이 자리하고 있다. 굽이굽이 산길을 달려 마주한 미술관은 마치 작은 요새가 자리 잡은 듯한 첫인상을 준다. 뮤지엄산은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의 대가 안도 타다오가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도시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난 산과 자연으로 둘러싸인 아늑함'을 모티브로 설계한 공간이다. 잔디주차장을 시작으로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본관, 명상관, 스톤가든 그리고 제임스텔관으로 이어져 있다.

본관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워터가든을 가로지르는 돌길 위로 알렉산더 리버만의 붉은색 조형물 '아치웨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뮤지엄 본관에서는 종이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페이퍼 갤러리와 기획·상설 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 명상관에서 예술과 자연을 테마로 기획된 명상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힐링 타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 뮤지엄산 강원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3

동화 속으로 풍덩! 동화마을 수목원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동화마을 수목원으로 안내한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마치 작은 '동화 마을'처럼 싱그러움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다. 주차장에서 수목원 입구까지 이어진 숲길을 걸으며 피톤치드를 만끽해본다. 구간 중간 중간 '숲으로 오세요', '나를 위한 하루', '동화 속으로 풍덩' 등의 다정한 글귀가 이곳만의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국내에서 9번째로 큰 수목원의 명성답게 모든 공간들이 널찍하게 이루어져 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숲으로 둘러싸인 잔디마당 한켠에는 '동화스러움'이 알록달록한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어 돛자리를 피고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다. 방문자 센터를 지나면 동화연못을 중심으로 향기를 뿜어내는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는 '향기원'과 각종 베리(Berry)류를 만날 수 있는 '벨리원'이 조성되어 있다. 수목원에서의 산책을 마무리 지으며 전망대에 올라, 한 폭의 동화처럼 다채롭게 이루어져 있는 수목원의 전경을 한눈에 담아본다.

☉ 동화마을 수목원 강원 원주시문막읍 동화골길 170

고요하고 송고한 걷기 여정, 호국의길 트레킹

제주 올레길이 있다면 원주에는 원주굽이길이 있다.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천리 도보여행'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원주굽이길은 총 30개의 코스로 이루어진 역사·문화·생태 트레킹 로드이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포장길을 피하고 걷기 좋은 흙길, 숲길, 물길, 미술안길 등을 최대한 걸을 수 있도록 코스가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6코스 '호국의길'은 원주천 새벽시장에서 출발해 원주천을 따라 북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길이다. 태장동 구룡굴과 흥양천을 거쳐 웃골을 경유해 호저면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은, 시작점에서 출발해 2km 정도 걷다보면 스탬프 인증함인 현충탑에 다다른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1964년 건립된 원주의 대표적인 현충시설이다. 민관군을 상징하는 세 개의 탑이 고요한 가운데 위엄 있게 공간을 채우고 있다. 소란스러운 시장 풍경에서 시작해 숲길을 거쳐 현충탑에 이르러, 오늘의 평범한 일상이 있기까지의 송고한 희생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원주에서의 여정을 갈무리한다. ☎

☉ 현충탑 강원 원주시태장동산124-2



4

지휘관이 움직여야 부대가 움직인다

각색/그림 최승춘
icartoonist@naver.com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천연수세미 만들기

매일 사용하는 수세미를 '진짜' 수세미로 만들어 사용해보자. 박 과의 식물인 수세미는, 일반 플라스틱 수세미만큼이나 세척력도 뛰어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 한 번 사용하면 계속 찾게 된다. 오래 사용해 해진 수세미 역시 활용도가 높으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수세미 열매를 구입하거나 직접 재배해 탄소발자국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천연수세미 만들기 필요한 재료와 도구 수세미 열매 실과 바늘 송곳 마끈 등

수세미는 발아가 잘 되고, 지지대로 잘 고정해 빛을 고루 받으면 아주 잘 자라는 식물이다. 원래 아열대 기후 식물이기에 물을 많이 줘야 열매가 잘 자란다. 어린 수세미는 차로 우려 마시면 기관지에 좋고, 진하게 달여 진액으로 먹을 수도 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에 섭취하면 위장장애 개선에도 효과가 좋다.

천연수세미 만드는 방법



① 수세미의 표면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한다.



② 적당한 크기로 자른 수세미를 끓는 물에 데친다.



③ 껍질을 벗겨내고 씨앗과 과육을 제거하고 건조한다.



④ 바로 수세미로 사용하거나,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 가장자리를 꿰매 매듭지어도 좋다.



⑤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후 마끈을 넣고 묶어 고리를 만들어주면 보관에 용이하다.

수세미 활용 TIP

1. 수세미의 단면을 두께감 있게 잘라 비누 받침대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2. 사용감이 있는 수세미는 크기에 맞게 잘라 화분 밑 흄거름망으로 재활용해 보자!
3. 집게에 길게 자른 수세미를 끼워 병 세척 솔로 사용해도 좋다.
4. 액체 주방세제보다는 천연 설거지비누를 함께 사용한다면 금상첨화!

유튜브를 보며 따라해보자!



에코플레이



취미부자 수토리

출처 에코플레이, 네이버블로그 jm's daily life

독마퀴즈 QUIZ

나무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사람은?

- ① 나무의사 ② 치유농업사 ③ 농촌 사회복지사 ④ 스마트 팜 구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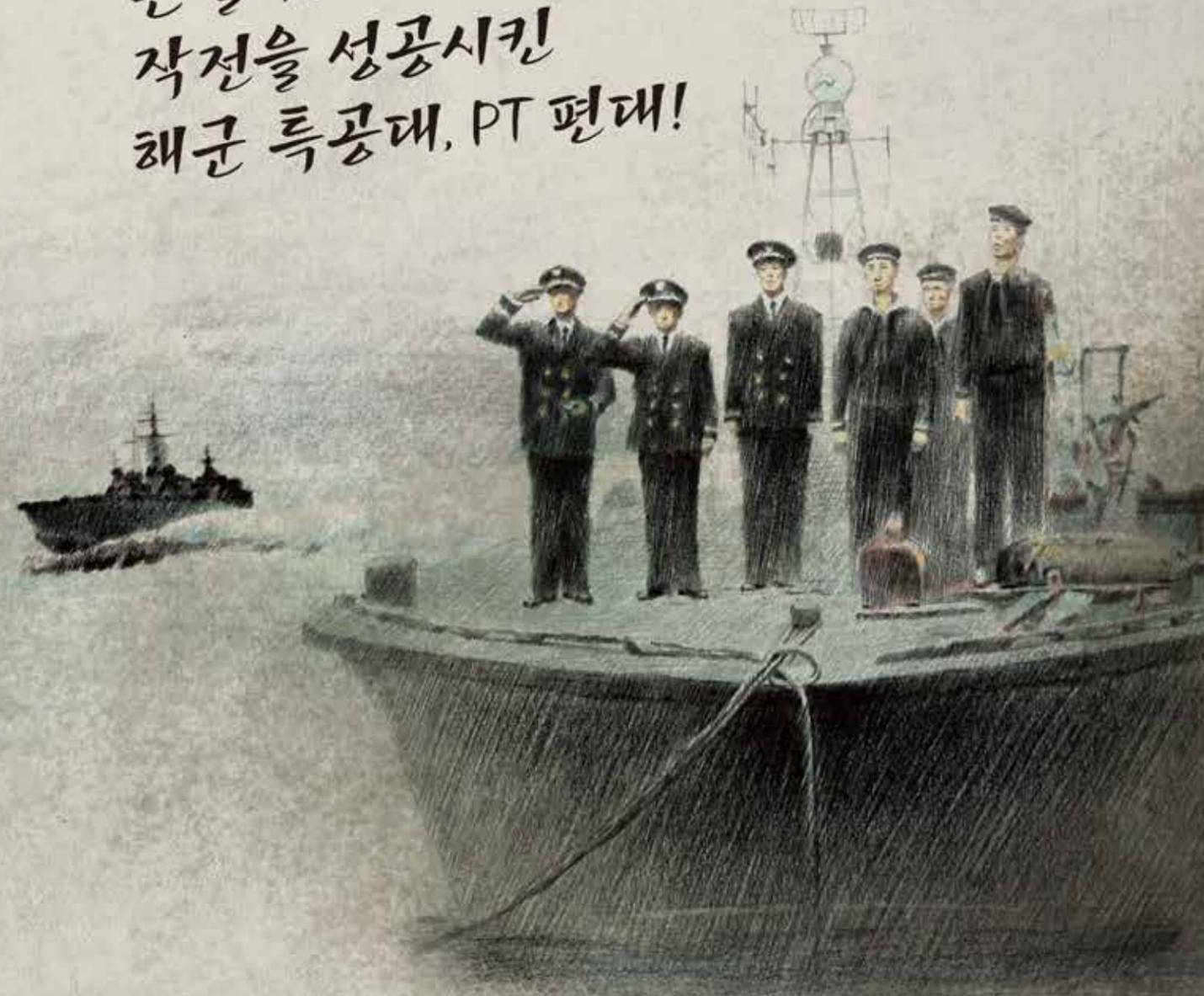
※ 4월 20일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주세요 (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3년 3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 김경수(경남 창원) 이광수(부산 북구)
노진서(대구 남구) 장용환(세종 소담)
박성조(전북 전주)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금을 보내드립니다.
※ 3월호 정답 ③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작전을 성공시킨 해군 특공대, PT 편대!



대한민국 해군
PT(Patrol Torpedo Boat, 어뢰정) 편대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한반도 해안에 맞는 함정의 필요에 따라 1952년 1월 24일 일본미 해군 기지에서 PT 4척을 인수한 후 2월 7일 PT 편대를 창설해 해상 작전을 전개했다. PT 편대는 워낙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기에 해군 특공대로 불렸다. 그중 PT-23(갈매기)·PT-26(올빼미) 편대는 1952년 4월 19일부터 서해안 대청도에 기지를 두고 장산곶, 웅진반도, 해주 등에서 5인치 로켓탄을 포격하여 적 군사시설을 파괴했으며, PT-25(기러기)·PT-27(제비) 편대는 1952년 5월 23일부터 동해안 여도에 기지를 두고 호도반도, 마양도, 신포에 이르는 해안선 일대에서 적 함선을 비롯한 해안포, 보급소, 지휘소, 병영, 차량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PT 편대는 원산해역에서 아간에 적 기뢰부설차단작전에, 동해안 38도선 이북 해역에서는 적 기차파괴작전에 참여하여 혁혁한 전과를 거뒀다.